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5	211	175	68
(사랑의 하느님)	(받아주소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제 1독서 | 하바국 1,2-3; 2,2-4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좌)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우)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좌)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 티모테오 2서, 1-6-8. 13-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7,5-10

오늘의 묵상 |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349~407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루카 17,10)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그릇된 열정에 사로잡힐까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기껏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입으로 그 덕을 얼마나 쉽게 까먹고 맙니까? 온갖 덕행의 모범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켜세우다 보면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

그때에 5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8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종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최민식 빈첸시오(1928-2013)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40



1960년 부산

“진실은 위대하다. 거기에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억압과 거짓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피폐한 우리의 농촌과 도시빈민, 시들어가는 어촌, 공해 등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의 사진 작업은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나에게 있어 사진 창작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의식하는 것, 민중의 참상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인권의 존엄성을 호소하고 권력의 부정을 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 사진 속에 녹아 들어야 한다.” - 최민식 빈첸시오 작가



최민식 빈첸시오(1928-2013) 작가는 한국의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입니다. ‘카메라계의 렘브란트’, ‘빛의 사진작가’라고도 불리우는 최민식 작가는 평생을 ‘사람’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28년 황해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화가가 되기 위한 꿈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은 항상 저의 친구였어요. 아버님이 장애인이었고 도장 파는 일을 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와 제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천주교를 믿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꽤 먼 거리에 있는 성당에 늘 걸어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뭘 하든 빈첸시오 성인처럼 살라고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빈첸시오 성인이 주교관에서 고아들을 키우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제가 곧잘 그림을 그리니까 밀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랬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은 한편의 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으로 밀항해 도쿄 중앙미술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그는,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의 사진집 <인간 가족(The Family of Man)>을 접하고 본격적으로 사진의 세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1962년 대만 국제사진전 입선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그의 사진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재 정권은 그를 불편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이후 새마을 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주도하던 정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죠.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에서 20회에 가까운 사진전시회를 열어 극찬을 받았는데, 정작 저는 정부가 여권을 내주지 않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정보부에도 수차례 불려가고, 심지어는 삼청교육대도 갈 뻔하고, 간첩신고도 많이 당했어요. 50년간 100번 이상 신고를 당했으니까 말도 못하죠.”

권력은 그를 옥죄어왔지만 그의 사진은 거짓을 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베네딕토회의 분도출판사를 맡고 계셨던 임인덕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그를 도왔습니다. 군부 정권 시절에도 사진집 출판을 도우면서, 곳곳하게 그의 작품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최민식 작가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진 작가였으나, 자신의 철학과 작품 세계를 위하여 세상의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고, 부유함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 최초로 그의 작품 15만 점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작품은 디지털화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진의 길만을 걸어온 최민식 작가. 그는 자신을 “행운아”라고 부르며, <낮은 데로 임한 사진>(눈빛출판사, 2009)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걸었고, 언제나 카메라와 함께 있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카메라로 사람들을 찍었다. 사람들은 가난했고, 나는 그들을 찍었다. 나는 없는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을 찍은 것도 아니다. 나는 계속 권력자 앞으로 불려갔다. 하지만 나는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또 길을 걸었다. 사진은 역사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늘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아직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카메라는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공지 사항

-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준비와 뒷정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School Holiday 아이들(유아&청소년) 활동

- * 장소: Bounce Belconnen
- * 일시: 10월 11일 (토) - 9:30 ~ 14:00
- * 일정 안내
 - 09:20am: Bounce Belconnen
 - 11:30am: 성당으로 이동
 - 11:45am 성당 교육관에서 점심식사

-참가 신청: <https://forms.gle/8mAhUDVqT9Z7z9bk9>

URL 접속 혹은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



by 김현진 작가

| 미사 참례자 수 |

9월 21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47명
9월 28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46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0월 5일)	루카반
다음주 (10월 12일)	마르코반

| 봉헌금 & 교무금 | (9월 27일 ~ 10월 3일)

봉헌금	\$ 270.50			
교무금	\$ 825			
강원혜	구민식	권묘순	김천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현주	황병욱	허준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